

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6년 7월 13일 · 제365호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김범중 연구위원

Contents

| 물류정책 · 사업동향 |

1. 인도 정부, 신규 환적 허브 항만 개발 승인
2. FM Logistics, 물류센터 내 드론운영 테스트 발표
3. 중국, 2018년까지 주요 항만 및 물류원구에 인입철도 건설 계획
4. 브렉시트(Brexit)가 글로벌 공급사슬에 영향을 줄 것인가?

| 물류시장동향 |

1. 말레이시아 PTP항, 싱가포르항에 재도전 준비
2.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신규 터미널 추가 건설



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인도 정부, 신규 환적 허브 항만 개발 승인

- 인도정부는 인도 남동부에 위치한 Enayam 지역에 새로운 환적 허브 항만 개발을 승인
 - 이를 위해 특수목적회사(Special Purpose Vehicle, SPV)가 구성되었으며, 인도 의회는 모디(Modi) 수상의 주도하에 개발계획을 승인함
 - 인도 항만은 Major 항만과 Minor 항만으로 구분하는데, 현재 인도에는 12개 Major 항만이 있으며, 계획이 승인된 신항은 Major 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임
 - 사업의 총 투자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, 타밀나두(Tamil Nadu)주의 Major 항만을 관리하고 있는 V O Chidambarnar 항만청, Chennai 항만청, Kamarajar 항만청이 초기 투자비를 조달할 계획임
- 신항만은 남인도 지역의 수출입 거점과 글로벌 환적 허브 역할이 가능하도록 개발
 - Enayam 지역에 개발될 신항은 현재 타국에서 환적되고 있는 인도의 자국 수출입화물을 직접 처리하는 거점 항만의 기능과 동서항로상에서 환적거점 항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함
 - 현재 인도 항만 중 초대형선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수심과 하역생산성을 갖춘 항만은 일부 항만에 불과하여 많은 물동량이 콜롬보항 및 싱가포르항 등에서 환적되고 있음
- 신항만 개발 이후 물류비 절감을 통해 남인도 지역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대
 - 남인도 지역의 수출기업들은 인근 국가 항만에서의 환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하역비용으로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
 - 또한, 인도 항만산업도 타국 환적으로 인해 연간 약 222백만 달러의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
- 인도는 최근 2003년에 발표된 Sagarmala 개발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재추진 중
 - 계획 초기 PPP(Public Private Partnership) 방식을 통해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, 대부분의 사업이 투자유치에 실패한 사례를 거울삼아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
 - 약 150개 개발 사업 중 40개 사업이 항만과 관련된 사업으로 인도 정부는 항만개발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
 -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인도 정부는 2016년 인도해양투자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함
- 인도의 강력한 항만개발 사업 추진을 우리기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추진 필요
 - 인도정부가 한국의 투자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나, 사업추진을 위한 인도의 행정절차 및 사업구조는 국내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
 - 따라서 기업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하고, 투자기회의 확보가 필요

자료 : www.joc.com, 2016.6.7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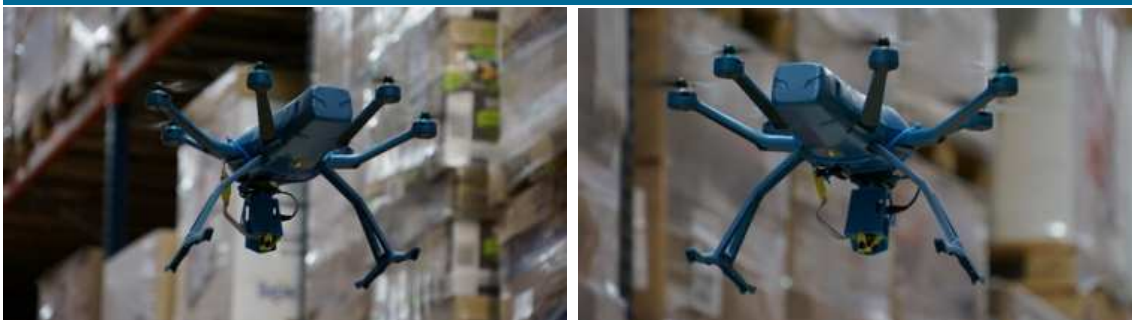
김근섭 부연구위원
051-797-4662, gskim@kmi.re.kr



FM Logistics, 물류센터 내 드론운영 테스트 발표

- 프랑스 물류기업인 FM Logistics가 사토라스(Satolas)¹⁾의 물류센터에서, 소프트웨어 업체인 Hardis Group과 드론 개발업체인 Squadrone System과의 협업으로 창고 내 드론운영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음
 - FM Logistics는 Hardis Group과 함께 해당지역 지도작성, 위치 파악, 불빛 감지, 지표 등에 대한 드론 비행 조건과 라벨인식 등 재고조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관련된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 사토라스에 물류센터를 개장하였음
 - 오는 9월부터 드론 시범운영, 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임
-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재고 자료를 확인, 포착하여 WMS(Warehouse Management System, 창고관리시스템)로 전송할 수도 있음
 - 또한 드론에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창고 주변을 자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, 인력에 의한 통제도 가능함
 - 재고 관리 및 운영에서 시간을 절약하고, 생산성과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함임
- 이번 테스트는 2016년 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며, Hardis Group과 Squadrone System은 2017년에 솔루션의 생산을 시작할 계획임
- FM Logistics는 1967년에 프랑스에서 설립된 물류기업으로, 아시아, 동유럽, 중앙유럽, 서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 등에 직원 약 2만 명이 근무하며, 매출액은 약 10억 유로 수준임

FM Logistics의 사토라스 물류센터 내 드론운영 테스트 현황



자료 : www.fmlogistic.com

자료 : www.fmlogistic.com, 2016.7.5.

송주미 전문연구원
051-797-4773, jmsong@kmi.re.kr

1) 프랑스 남부지역의 리옹 인근에 위치함



중국, 2018년까지 주요 항만 및 물류원구에 인입철도 건설 계획

- 지난 6월 21일, 중국 국무원은 「양호한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한 교통·물류 융합발전 실시 방안」(이하 「방안」)을 발표함
 - 「방안」은 중국 국무원이 교통과 물류의 융합 발전에 관해 발표한 최초의 문건이며, 발전 목표로 2018년까지 중국 주요 항만 및 대형 물류원구의 80%에 인입철도 건설을 제시함
 - 또한 2018년까지 컨테이너 Sea&rail 복합연계운송량을 연평균 10% 이상 증가시키고, 철도 컨테이너 적재 비중을 10% 이상으로 제고하며 공차율을 낮추어 '사회물류총비용'의 GDP 비중을 2015년 대비 1%p 하락시킨다는 목표임²⁾
 - 「방안」은 2020년까지 Sea&rail 복합연계운송량 연평균증가율 10% 이상을 유지하고, 철도 컨테이너 적재 비중은 15% 이상, 철도화물의 정시성은 95%까지 달성한다는 방침임
 - 그 밖에도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배송 네트워크를 대폭 확충하고, 2020년까지 사회물류총비용의 GDP 비중을 2015년 대비 2%p 낮춘다는 목표임
- 「방안」에서는 종합운송정보, 물류자원 거래, 원자재 거래 관련 전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공유, 노선 최적화, 창고·배송관리, 화물 추적, 데이터 분석, 신용평가,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임
 - 플랫폼 운영기업의 서비스 기능을 확대시켜 플랫폼과 물류서비스 거래, 공급사슬, 국제 전자상거래 등을 접목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며('플랫폼+'), 플랫폼 운영기업과 금융기구 간의 협력을 통해 담보 및 결제, 보험 등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는 방침임
 - 또한 '일대일로' 구상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국제 교통물류 및 무역 플랫폼의 통합 연계 추진을 제시함
- 「방안」은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 지원 강화를 강조했으며, 국토자원관리부문이 교통·물류 공익시설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, 건설 용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함
 - 또한 재정 자금 및 전문 펀드를 활용해 사회적 투자를 유인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한편, 교통·물류기업들이 채권발행, 주식상장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함

자료 : www.soft808.com, 2016.6.27.

김세원 연구원
051-797-4775, ksw@kmi.re.kr

2) 사회물류총비용(Total social logistics costs)은 우리나라 '국가물류비'에 해당하며, 2015년 중국의 사회물류총비용은 10.8조 위안으로서 중국 GDP 대비 비중은 16%임



브렉시트(Brexit)가 글로벌 공급사슬에 영향을 줄 것인가?

- 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공급사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 - Forbes는 지난 달 24일에 영국 국민투표로 결정된 영국의 EU탈퇴(Brexit)가 글로벌 공급사슬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고, 장기적으로 Brexit가 물류부문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함
 - 특히 관세와 무역제재 부문이 글로벌 공급사슬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
 - 노르웨이, 스위스 등의 국가는 EU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, EU시장과의 거래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,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, 영국과 EU간의 관세 관련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
 -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, EEA(European Economic Area: 유럽경제지역) 국가 중에 하나임
 - 스위스의 경우, EEA 회원국은 아니지만, EU와 FTA 체결을 통해 금융 등 일부를 제외하면 EU와 무역에 있어 문제가 없는 상황임

영국의 EU탈퇴 지지 캠페인



자료 : www.forbes.com



- EU 탈퇴로 인해 영국 사업자들의 거래 및 유통망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
 - EU 탈퇴로 기존 거래 및 유통망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, 이로 인해 영국의 사업자들은 새로운 무역지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함
 - Brexit로 인해 SEKO Logistics는 조세관련 제도의 변화 및 혼란 가중을 최소화하고자, 회사의 자산을 영국에서 독일, 네덜란드 등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음
 -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영국과 EU간의 무역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 전까지는 기업들이 투자 등과 관련하여 관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거래와 유통망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- 영국 파운드 약세로 단기적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영국의 지분투자가 많은 물류 기업들의 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
 - Brexit로 인해 물류부문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는 영국 화폐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영국 내 공산품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
 - 하지만 영국의 지분투자가 많은 FedEx, Maersk, UPS, XPO Logistics 등의 글로벌 물류 회사들의 주식가치는 2~15% 정도 하락함
 - 특히 영국의 투자지분이 12%를 차지하고 있는 XPO Logistics는 Brexit발표 이후 주가가 약 15% 하락함

자료 : www.forbes.com / www.apcis.org, 2016.7.2.

이건우 전문연구원
051-797-4784, gunwoo@kmi.re.kr



물류시장동향

말레이시아 PTP항, 싱가포르항에 재도전 준비

- 탄중 펠레파스 항만은 2억 달러를 항만 개발 사업에 투자할 예정임
 - 말레이시아 탄중 펠레파스 항만은 싱가포르 항만에 대안 항만으로서 주요 환적 항만으로 발전했으며, 약 2억 달러를 투자하여 2030년까지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현재의 두 배인 2,200만 TEU까지 늘릴 예정임
 - 탄중 펠레파스 항만의 Che Khalib Mohamad Noh 사장은, “이번 개발은 3단계로 201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. 3km에 걸쳐 6개의 선석을 건설하는 3A 및 3B 단계 사업을 통해 2030년 까지 항만의 처리능력은 2,220만 TEU까지 증대될 예정이다” 라고 언급
- 한편,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탄중 펠레파스 항만을 포함하여 다른 동남아 항만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음
 - 알파라이너(Alphaliner)에 의하면, 싱가포르의 전체 환적 물동량은 올해 4월까지 7.8% 감소를 기록하였고, 2015년에는 전년에 비해 8.7% 감소세임
 - 싱가포르는 글로벌 선사인 CMA CGM과 PSA간 연간 3백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4개의 컨테이너 선석 임대운영 등을 위한 합작 투자 협회가 진행 중임
 - 이는 그동안 탄중 펠레파스와 포트클랑 및 말레이시아의 다른 항만들로 이전된 환적 물동량을 되찾겠다는 싱가포르 정부 계획의 일환임

자료 : www.joc.com, 2016.7.2.

이성우 연구위원
051-797-4771, waterfront@kmi.re.kr

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신규 터미널 추가 건설

- 극동개발공사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부지에 신규 터미널 2개를 추가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함
 - 새로운 시설 터미널은 ‘Vostok LPG’ 사, ‘Terminal’ 사와 각각 이루어졌으며, 계약 규모는 약 46억 루블임
 - 이 터미널은 블라디보스토크시와 아르쭘시를 잇는 요지에 건설이 되며, 항만, 육로, 항공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임



- ‘Vostok LPG’ 사는 연해주 하산 지역 20헥타르 규모 부지에 수산터미널과 LPG 공급 인프라 단지를 건설할 예정임
 - 이 지역에서 생산한 LPG는 해상을 통해 아태지역으로 수출될 예정임
 - 또한 120여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 될 것으로 예상됨
- ‘Terminal’ 사는 아르ო시 지역에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임
 - 건설 예정인 컨테이너 터미널은 약 4천 평방미터 규모의 건조창고와 2만 평방미터 규모의 대량화물 저장이 가능한 야적장이 포함 될 예정이며 철도인입선도 연결 될 것임

자료 : www.minvostokrazvitia.ru, 2016.6.20.

이하림 연구원
051-797-4758, harimyi@kmi.re.kr